

양동시장 상인 75%

“할인점 때문 매출 줄었다”

전남대 경영研, 양동시장 상인 의식조사

호남 최대의 상설시장인 양동시장 상인들은 대형 할인점의 증가로 매출 액이 급감하고 있으며, 주차장·방난 방시설·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등을 제대로 갖춰야만 이들과 경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대 경영연구소는 19일 광주시 서구청에서 열린 ‘양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끌자로 하는 ‘양동시장 상인의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양동시장 입주상인 가운데 분야별 대표 4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서 75%는 “주변에 대형 할인점이 개점하면서 양동시장 매출액이 급감했다”고 응답했다.

반면 상인들은 대형 할인점에 비해 저렴한 가격(56.3%)과 다양한 제품(33%) 등이 고객들이 양동시장을 찾

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상인들은 시장 활성화 사업에 자체 조달분을 부담하겠다는 쪽(56%)과 참여하고 싶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쪽(25%)으로 갈렸다.

한편, 양동시장은 715개 점포가 있고 상인 수는 684명(복개상가 제외)에 달하며 1일 평균 2만 1천 379명의 고객과 4천 854대 차량이 찾고 있다. 주차시설은 350면에 불과하다.

점포 중 56.3%가 임대이고, 규모는 5~15평이 93%, 1일 평균 매출액 50만 원 이하가 62.5%를 차지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양동시장이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현대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월드컵 경기장 교통대책 용역 추진

광주시가 대형 할인점의 개장으로 교통혼잡을 빚고 있는 월드컵경기장 인근 교통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광주시는 19일 ‘롯데마트 월드컵 몰 일대의 교통체증·주차난 해소방안과 전국체전 등 대형행사에 대비하기 위해 940만원을 들여 교통개선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시는 응력을 통해 ▲서쪽 출입구를 주경기장 전용출입구로 변경함에 따른 교통처리 ▲골프연습장 앞 무단주·정차 금지를 위한 개선 대책 ▲비포장 주차장의 포장계획에 따른 주차동선개혁 및 주차 구획 재설정 ▲전국체전 등 주요행사 할인점 운영시간

과 겹칠 경우의 주차계획 및 교통처리 대책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600여 명의 주차면적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 롯데마트 층과 주차장 추가 개설 문제 등을 협의하고 있다.

시는 앞서 롯데마트 입점으로 인한 주차난 등으로 경기장 등 체육공원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본보 1월 30일자 1면)에 따라 지난 15일 월드컵경기장 서쪽 출입구를 봉쇄해 경기장 이용객과 마트 이용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해 왔다.

시는 응력을 통해 ▲서쪽 출입구를 주경기장 전용출입구로 변경함에 따른 교통처리 ▲골프연습장 앞 무단주·정차 금지를 위한 개선 대책 ▲비포장 주차장의 포장계획에 따른 주차동선개혁 및 주차 구획 재설정 ▲전국체전 등 주요행사 할인점 운영시간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생 활 안내

신 고

교통안내	신고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철도내 1544-7788 대한항공 222-2000 아이언항공 221-6300 한국도로공사 1588-2505	•기정법률상담소 보건부기획실 평생상담소 671-4050 광주 YMCA 527-0011 •24시간 청소년상담 국민없이 1388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청 1588-0060 •병무기원상담 광주YMCA 1588-9090 •소비자 상담 광주 YMCA 232-6133 광주 YMCA 524-5400 주부교실 232-0643-4 녹색소비자문제연구 369-9881
당직변호사(20일) 양지복 233-3690 •법무사회 법률상담(20일) 이영우 239-1809	•학교폭력 국립여성학원 112 전남경찰청 226-0112 광주서검 233-2828 •사기·부정 (02)118 •기장폭력 여성기금 국법없이 1366 여자청소년기동대 363-0155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광주여성학대예방센터 국법없이 1391 •광주여성학대예방센터 국법없이 1389
상 담	
•당직변호사(20일) 양지복 233-3690 •법무사회 법률상담(20일) 이영우 239-1809	

외국인 결혼 이민자 722명

9월까지 무료 건강 검진

광주시는 19일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여성 결혼 이민자 722명을 대상으로 9월까지 무료 건강 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여성결혼 이민자는 결혼비자 발급 후 국적을 취득하기까지 2년간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검진의 주요 검사항목은 기능, 당뇨, 고지혈증 등 9개 항목으로 건강보험공단의 일반국민 대상 건강검진과 큰 차이가 없다.

검진 결과는 15일 이내에 거주지 주소로 개인에게 발송되고, 유소견자는 관할 보건소에서 정밀검사 또는 치료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검진은 서구와 북구 거주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배우자도 원활 경우 무료건강 검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검진을 원하는 여성결혼 이민자는 주거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송한 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한국건강관리 협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증진센터(363-4040)를 방문해 검진을 받으면 된다. 검진 시간은 오전 8시~오후 3시.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무등산 바람재~늦재 183m 훑길 복원



무등산 일주도로 생태복원 사업이 한창이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소장 임희진)는 등산객들의 숲길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바람재~늦재 구간 183m의 아스팔트를 뜯어낸 후 단풍나무를 심고 친환경적인 훑길로 새 단장하고 있다. 준공 예정일은 4월 11일이며 사업비는 4천 300여만원.

/위즈링기자 jrwi@kwangju.co.kr

공항서 호객 행위땐 500만원이하 과태료

광주공항 등 공항에서 기승을 부리던 불법 호객행위가 올해 하반기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공항시설에서 승인없이 영업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손님을 부른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호객행위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국내 공항의 이미지를 높일 방침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시립도서관 서비스 좋아요

이용 시민 10명중 8명 만족

광주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 10명 중 8명이 도서관 운영 등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광주시립도서관에 따르면 지난달 무등·사직·산수 등 시립 3개 도서관 이용자 200명을 대상으로 도서관 현장 인지도·고객응대서비스·업무서비스 등 4개 분야 19개 문항에 대해 설문 조사를 한 결과 83%가 ‘도서관 전체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만족도 79%보다 4.3%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특히 대출시간 단축, 공무원의 친절성, 자료반납기일 사전안내, 중식 시간과 토·일요일 정상 근무 등은 이용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립도서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세계 물의 날 기념

전국 UCC 공모전

광주환경운동연합 주최 세계 물의 날 기념 ‘전국 UCC 공모전’에서 박은희·신철환(경기도 남양주시) 가족의 ‘우리는 물지킴이 가족’이 최우수상(환경부장관상)에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모두가 함께 하는 행복한 릴레이’(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소리없이 움직이는 생각’(김형수씨 등 4인), ‘광인탱고’(이지연씨 등 2인) 등이 각각 뽑혔다.

시상은 오는 22일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한 ‘영산강사랑 시도민실천대회’에서 하게된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저소득·독거 노인 복지 ‘업그레이드’

5월부터 돌보미바우처·도우미 본격 서비스

광주시내 저소득 노인·독거 노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5월부터 본격화된다.

광주시는 19일 “올해 17억 원을 들여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과 ‘독거 노인 도우미 파견 사업’을 5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노인들의 가사와 외부활동을 지원해 외롭지 않은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하기 위해서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도=노인돌보미 바우처 제도는 치매·중증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어려운

차상위 계층 노인의 집을 노인 돌보미가 방문해 ▲식사 ▲세면 ▲옷 갈아 입히기 ▲외출동행 ▲청소 ▲세탁

▲생활품 구매 등을 해주는 프로그램으로 6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서비스 받기를 원하는 노인이나 가족이 4월 2일부터 13일까지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 제공 여부를 조사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3만 6천 원을 선납하고, 시장에서 20만 1천 원을 지원해 하루 최소 4시간, 월 27시간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한 서비스 이용

권(바우처)을 받을 수 있다.

◇독거노인 도우미 피케=홀로 사는 노인의 집을 도우미가 1주일에 1~2번 방문해 복지욕구 등을 상담하는 서비스다. 시는 광주시내 2만 3천

436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5월 중에 전수조사를 해 노인들을 ▲고위험군 ▲저위험군 ▲서비스연계대상 등을 분류한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6월부터는 노인별 상황에 맞춰 도우미 130명을 파견해 ▲안부전화 ▲건강상태 확인 ▲말벗 ▲가사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김치축제 ‘문화축제’로 키운다

10월 중외공원일대 개최

디자인비엔날레 등 함께

올해로 14회를 맞는 광주김치대축제가 지난해보다 한 달 앞선 10월 중에 광주 중외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또 김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가족단위 체류형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시는 이를 위해 축제 기간 중 행사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한국관광공사 등을 통한 국내외 공동홍보에 나선다.

시는 이를 위해 축제 기간 중 행사를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한국관광공사 등을 통한 국내외 공동홍보에 나선다.

또 김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가족단위 체류형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시는 이를 위해 축제 기간 중 행사를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한국관광공사 등을 통한 국내외 공동홍보에 나선다.

▲슬로우 푸드(SLOW FOOD)=미각의 균일화를 초래하는 패스트 푸드(fast food)에 대처되는 말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전통적이고 다양한 식생활을 가능케 하는 음식.

▲로하스(LOHAS)=이웃, 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꼽았다.

/김주정기자 jjnews@kwangju.co.kr



국제외식산업(주)

맛과 맛을 새롭게... 한국인우수상

아외 결혼식 가능 (한국인우수상)

관광버스음식 대절 (한국인우수상)

전화: (062) 282-2278



SASA 푸드페스티벌

